

# 참 선비 환경인

김준호(金俊鎬) 박사 -中-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 3. 김준호 박사님의 우리나라 '자연'에 대한 사랑

김준호 박사님은 자연문제 전문가이시면서도,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당연한 일을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학문적 구조가 이상해서 인지?, 자연문제 전문가는 자연문제만, 환경문제 전문가는 환경문제만 다루 온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보호 단체가 생태계 보호(?)를 위해, 호수에 물고기를 풀어주었는데, 그 호수는 근처 논과 밭에 뿌린, 농약과 제초제 등으로 오염되어, 물고기가 바로 죽은 예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환경보호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해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이 모두가 자연문제와 환경문제가 각각 따로 움직인 까닭이었다. 지금이야, 자연과 환경이 하나로 통합적 연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10여 년 전만해도, 자연관련 단체와 환경관련 단체들은 엄연히 구분되어 움직였고, 학자들도 따로 연구, 조사하기가 일수였다.

그런 시절에 김준호 박사님은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환경관련 모임에 적극 참여하신 것을 보면, 개인 학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환경문제 중에서 기술적 관리 대책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환경기

술인' 모임의 고문으로도 활동하셨다.

그래서 이 칼럼을 쓰면서, 김준호 박사님께 부탁드렸다.

"우리 환경기술인들이 환경문제 해결의 기술적 대책에 대해서는 pro인데, 자연과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한 것 같으니, 좋은 말씀 해 주십사 '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 문제를 아래에 소개한다.

### 4.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

한국의 자연은 깨끗한 공기, 심미 감을 주는 삼림, 맑은 하천 그리고 드넓은 간척지로 특징 지워진다.

우리는 이러한 특이한 자연에 길들여져서 귀중한 줄 모르고 살아왔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에 걸쳐 경제지상주의에 밀려 이들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 환경기술인의 궁극의 목표는 우리의 자연과 인명을 지키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삼림은 외국에 비해서 식물의 종 수(종 다양성)가 많은 점이 특징이 있다. 약 4만 년 전의 지질시대에 서양(유럽과 북미)에서는 빙하가 남진하여 지면을 깎아 내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식물이 밀려나고 말았다.

그 후, 온난기로 바뀌어 식물이 다시 들어왔지만 많은 종이 들어 오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러서 종수가 적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빙하가 휩쓸지 않아서 몇 억 년 전부터 자생했던 많은 종의 식물이 현재에도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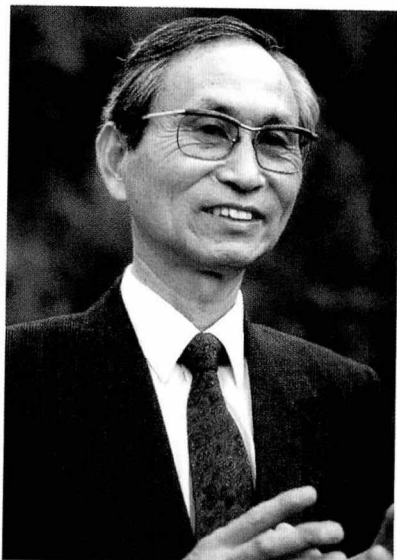
지구 환경이 열악해지는 이때 생물의 종 다양성은 인류의 귀중한 자산이므로 우리는 풍부한 자산을 가진 셈이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삼림은 몇 억 년에 걸쳐 쌓인 토양에 뿌리 내려 형성되었는데 하루 사이에 불도자의 희생물이 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석회암지대의 시멘트 공업, 크고 작은 공업단지의 부지 조성 등으로 파괴되는 삼림과 지표면 토양은 다시 복원이 불가능한 자연자원이다.

삼림이 울창해야 동물이 살고, 많은 동물이 살아야 건전한 생태계가 형성된다. 삼림이 울창해도 동물이 없으면 온전한 생태계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야생동물의 보호를 소홀이한 탓으로 야생동물 수가 줄었고, 특히 호랑이나 곰과 같은 고차 영양단계의 동물들이 멸종되었다. 그들을 복원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경비가 들고, 어쩌면 복원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한 때의 그릇된 자연보호가 얼마나 심각하게 부메랑으로 되어 되돌아왔는지를 일깨워주는 값진 교훈이다.

〈계속〉



▲ 본 월간지 1991년 4월호 '환경관리인연합 회보' 표지에 모셨던, 당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직으로 계셨던 김준호 교수님!